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 다시 좌절

조계종 중앙종회, 관련 종헌 개정안 부결

비구니 초·재심 호계위원 진입이 다시 좌절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18~20일 열린 제197차 임시회에서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부결시켰다. 결과는 찬성 46표, 반대 20표, 무효 1표였고 의결정족수 54표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 중앙종회 196차 회의에서도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에 실패했고, 일부 비구의원 스님들의 의사 발언까지 논란을 빚으며 당시 비구니의원 스님들은 회기를 보이 못했다.

이후 종헌중립제개정특별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거쳐 현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초심호계위원 7명, 재심호계위원 9명을, 비구니 스님 2명을 추가해 각각 9명과 11명으로 늘렸다.

또 재심호계위원의 자격은 법계 종사·명덕, 승남 30년, 연령 50세 이상, 초심호계위원 자격은 법계 종덕·현덕, 승남 25년, 연령 45세 이상의 울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승려'로 개정했다. 다만, 비구니 호계위원은 비구 징계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비구니 호계위원의 비구 징계사

건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문제가 됐다.

종회의원 영배 스님은 “비구니 호계위원이 비구 스님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 못한다면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고, 영담 스님은 “호계원 심리

찬성 46표, 반대 20표로

의결정족수 54표 못 채워

통과 약속한 비구 스님들

무기명 투표 가더니 반대

제가·여성 단체 비판 성명

“만연한 차별의식서 기인”

에 호계위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불평 등하다. 차라리 비구니 호계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또한 대승적 차원으로 만일정도로 통과할 것이 제안됐으나 종헌 규정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는 원칙문을 넘지 못

했다. 강력하게 원칙문을 주장한 무에 스님은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다. 종헌에 위반하는 표결에 반대한다. 종헌대로 하지 않는다면 퇴장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삼파도량 회장 영담 스님은 “삼파도량 회원 스님들은 모두 종헌 개정 찬성해달라”며 공개 지지했고, 불교광장은 만담 스님이 공개 찬성을 요청하며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다. 결과는 부결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비구니 종회의원 일운 스님은 “비구니 권의 향상에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는가”라면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후 비구니의원 스님들은 자리를 떠났으나 종회 사무처장의 설득으로 다시 자리를 채웠다.

이번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3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구니 승가의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중립 제정을 촉구했고, 기자회견 직후에는 청원서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비구니 균순장교와 첫 비구니 종단 기관장 임명 등 비구니 위상 강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사회 여론도 긍정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

계종은 기득권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 좌절”에 불교계가 시민단체와 여성계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단자정센터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여성연구소, 지혜로운여성, 종교와젠더연구소는 3월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종회의원의 인식에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비구니 스님을 호계원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반대하는 비구 종회의원은 누구며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반대한 20명은 스스로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비구니 스님의 호계원 참여는 비구니 승가를 인정하고 동반자로 여긴다는 최소한의 표시”라며 “그럼에도 이를 부결시킨 것은 비구 승가만이 모든 권력과 역할을 갖고 사부대중공동체를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중앙종회의 결정은 교단에 만연한 비구니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과 제도 그리고 차별의식에 기인한다”며 “차기 종회에서 비구니차별이 지속된다면 종도들의 뜻을 모아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연등축제, 전세계인이 함께 해요”

연등회 외국인 홍보, ‘글로벌 서포터즈’ 출범

연등회·연등축제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등의 자원봉사를 진행할 글로벌 서포터즈가 출범했다.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는 3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출범식을 열었다.

한국인 50명과 미국·중국·러시아 등 21개국 외국인 50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는 4월 25~27일 연등회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불교 문화체험과 길 안내, 통역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헤일 스님,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 문화부장 헤일 스님은 “한

국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연등축제의 기쁨을 각국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기게 될 것”이라며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포터즈들은 3월 22일 서울 김상사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으며 4월 6일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식 자원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연등회와 한국의 역사, 전통문화 등에 대한 강의도 받는다. 또 4월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점등식에서는 ‘플래시몹’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핀란드에서 온 잉그리트 피로넨(21) 씨는 “연등축제 홍보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불교와 함께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3월 18일 ‘연등회 서포터즈’ 출범식을 열었다.

조계종 ‘불자대상’ 공모 오는 4월 11일까지 접수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온 불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종단이 제정한 ‘불자대상’ 후보자를 찾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불기2558년 불자대상 시행을 공모하고 오는 3월24일부터 4월11일까지 후보를 추천 받는다. 불자대상은 불법홍포 및 한국불교 위상 제고, 불자의 자긍심 고취, 종단 발전과 홍보,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로가 큰 불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과 고인(故人), 단체를 포함한다.

후보자는 중앙종회의장, 호계위원장, 각 교구본사 및 종단 등록 사찰 주지 스님, 종단 등록 각급 포교단체 및 신도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서와 공적사항 입증 자료 등을 꾸며 총무원 총무부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양식은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불자대상 시상식은 부처님오신 날인 오는 5월 6일 서울 조계사 봉축법요식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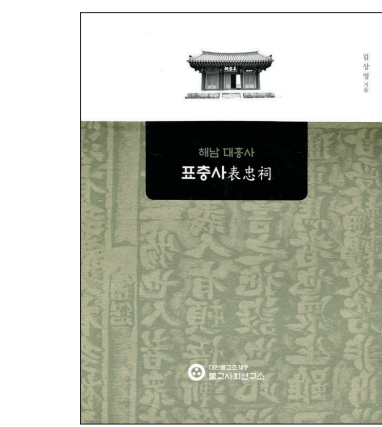
호국불교 사찰 첫 자료집 발간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해남 대흥사 表忠祠’ 내보 사찰 제향시설 연구 발간 매년 1권씩 시리즈로 출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해남 대흥사 표충사表忠祠>편을 출간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교수가 집필한 이 자료집은 호국불교사찰 자료집은 첫 번째 책으로, 이 책을 시작으로 매년 1권씩 시리즈로 발간한다.

그동안 해남 대흥사 경내의 표충사表忠祠와 관련해서는 <대둔사지(大屯寺志)>(한국사지총서, 아세아문화사, 1979)와 <대둔사지(대둔사지간행위원회, 강진문헌연구회, 1997)> 등 총 두 권의 자료집이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 두 권의 자료집에는 표충사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누락돼 있었고, 연구소는 6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표충사(表忠祠)’ 관련 자료집을 발간



했다. <해남 대흥사 표충사表忠祠>편에는 해남 대흥사 소장 자료뿐 아니라 새롭게 발굴된 답양 용흥사 소장 표충사 자료 등 해남 표충사에 관한 가장 최근의 방대한 사료가 망라됐다.

현재 용흥사에 소장되어 있는 9종의 표충사 관련 자료는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단에 의해 조사돼 비로소 알려진 자료이다. 또 대흥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네 종의 자료는 불

교사회연구소가 현장 조사를 통해 새롭게 찾아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그동안 전통사찰과 관련해서는 많은 저술들이 이루어졌고, 이를 소개하는 대중서도 발간됐다”면서 “하지만 정작 조선시대 호국불교와 관련해 중요한 제향시설인 해남 대흥사 내 표충사(表忠祠, 휴정·유정·처영스님 제향), 밀양 표충사(表忠寺) 내 표충사(表忠祠, 유정·휴정·영규스님 제향), 북한 보현사 내 수충사(酬忠祠, 휴정·유정·처영스님 제향), 계룡산 감사 내 표충원(表忠院, 휴정·유정·영규스님 제향)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조사와 소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사찰 내 제향시설은 불교의 승려들을 유교식 제향절차를 통해 국가의 의례체계 내에 포함시켜 제향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국가와 불교, 교단과 승군체제의 관계, 전란 이후 승단과 승려들의 동향 이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신종일 기자

南불교계, 조불련과 교류 협의 잇달아

천태종 개성 영통사 봉축 법요 위드아시아 효봉스님 생가 방문

남북 불교계가 최근 잇달아 협의를 갖고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천태종 3월 13~14일 중국 심양에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과 교류 실무회담을 했다. 천태종 대표단은 실무회담에서 5월 1~2일경 개성 영통사 합동 봉축 법요식을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영통사 낙성 9주년 및 의천 대각국사 913주기 열반 다례제 남북합동 법회를 단양 구인사에서 병행 △개성 영통사·관음사·안화사 3사순례 추진 △영통사 복원 공덕비 조성 △불교전태중앙박물관을 통한 개성 불교문화재 전시·문화교류 등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조불련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향후 전문을 통해 협의 내용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이번 실무회담에는 남측 천태종 사회부

장 보광 스님과 사회국장 성공 스님, 북측 조불련 차급철 서기장과 송춘일 부원, 한정철 조불련 전국신도회 부회장, 김석철 조불련 전국신도회 신도위원 등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도 3월 15일 중국 심양에서 조불련과 남북불교교류 및 문화교류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실무회담에는 (사)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 (사)위드아시아 이사장 관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불련 측에 효봉 스님 사상연구를 위한 자료 요청 및 생가 존재 확인 후 생가 방문 추진을 제안했다. 남북 문화교류전을 위한 ‘제2회 어린이 및 남북학생 문예교류전’을 부산에서 개최할 것도 제안했다. 양측은 향후 남북 관계 상황을 살펴가며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드아시아는 아시아 지역 빈곤·소외 계층과 국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국제구호 비영리 법인이다. 지난 12여 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인도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했다.

신종일 기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넘쳐나는 기도 영험도량 현지사 부산분원!!



현지사 부산분원

부부가 불화하여 헤어질려고 한다거나 자식이 불효해서 가정이 시끄럽거나 아기도 갖지 못하고 각종 시험에 시달리는 등 가정사 잘 되지 않을 때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해라. 관세음보살님공부를 읽고 다라니를 21번씩 하든지 108번씩 하든지 하고 청명염불하고 참회발원하면서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라.

- 2011년 7월 광명 만덕 큰스님 소참법문 중에서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부산분원 4월 정기법회 : 4월 6일(일) 오전 9시

육도윤회와 지옥 극락의 실재, 인간본체인 영혼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무아설에 대한 비판, 불보살님이 무아 속 절대계(연화장세계)에 계심 그리고 인간과 우주만물의 탄생에 대한 미증유한 법문 등 21세기를 열어가는 현지사 큰스님의 사자후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37회제)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51)554-5150

현지사 ‘초파일 10만 봉축등’ 접수합니다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는 초파일 봉축등 접수하여 부처님 회상과 인연 맺고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합니다

관음재일 행사 :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정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 재일 : 매월 음력 초하루 오전 10시 30분

현지사 재일 : 매월 음력 15일, 2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분원 100일기도 안내 : 관세음보살님, 산왕부처님, 지성광부처님, 화엄성존님

